

## 인간의 선악을 보여주는 영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ffects of Videos about Good and Evil on Moral Judgments  
Regarding Self and Others

김신우<sup>1†</sup>, 이원섭<sup>2</sup>, 이형철<sup>3</sup>

ShinWoo Kim<sup>1†</sup>, WonSeob Lee<sup>2</sup>, Hyung-Chul O. Li<sup>3</sup>

### Abstract

Previous research demonstrated that moral judgment is not an outcome of rational reasoning, but an independent variable determined by diverse factors. The effects of disgust on moral harshness, audience effect on moralistic punishment are some examples that support this view. The variability of moral judgment raises a question on what effects video stimuli might have on moral judgments. Although a few studies (Schnall, Roper, & Fessler, 2010) have shown that watching a prosocial video clip promote moral behavior, no research have simultaneously tested the effect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deo clips on moral (not behavior but) judgments. Hence, this research tested the effects of viewing videos about good and evil on moral judgments regarding the self and others. To this e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view a video clip depicting content of either positive or negative human behavior and required to make moral judgments on conduct described in a scenario assuming that the person committing the act was either themselves or another person.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f both video contents (positive, negative) and the actor (self, others) on moral judgments, but they were qualifi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n particular, participants who watched evil deed of others made harsher judgments on others' moral transgres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video contents influence moral judgments, and the effect depends on the actor of the immoral behavior. In general discussion, we interpreted the results based on moral disgust, framing effect, and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Key words:** Framing Effect,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Moral Disgust, Moral Judgment

### 요약

기존 연구들은 도덕적 판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혐오감이 도덕적 엄격함을 유도하며, 도덕적 처벌에 대한 청중효과는 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도덕적 판단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강한 정서적, 인지적 효과를 가진 영상 자극이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긍정영상이 도덕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Schnall, Roper, & Fessler, 2010), 부정영상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 자신 혹은 타인의 도덕적 위반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내용(긍정, 부정)과

\* 이 논문은 2016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1†</sup>(교신저자) 김신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부교수 / E-mail : shinwoo.kim@kw.ac.kr / TEL : 02-940-5421

<sup>2</sup>이원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석사졸업

<sup>3</sup>이형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행위주체(자신, 타인) 모두 도덕적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 참가자들은 타인의 도덕적 위반행위를 더욱 가혹하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영상의 내용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행위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적 혐오, 프레이밍 효과, 기본적 귀인오류에 근거하여 이 결과를 해석하였다.

**주제어:** 프레이밍 효과, 기본적 귀인오류, 도덕적 혐오, 도덕적 판단

## 1. 서론

과거 연구자들은 인지발달에 따른 도덕적 추론능력의 향상에 의해 도덕성이 발달하며 따라서 도덕성 및 도덕적 판단은 사고능력에 기반한다고 제안했다(Kohlberg, 1971; Piaget, 1965). 그러나 도덕심리학의 과거 20년간의 연구들은 도덕적 판단이 추론능력보다는 직관적이며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영상에 의해 유발된 긍정정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적 행동에 대하여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Valdesolo & DeSteno, 2006). 또한 부정정서인 혐오감은 비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유도하며(Lee, 2019;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Wheatley & Haidt, 2005), 심리적 혐오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너그러운 판단을 하게 만든다(Tracy, Steckler, & Heltzel, 2019).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청결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Jung, Li, & Kim, 2015; Zhong, Strejcek, & Sivanathan, 2010).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요인, 즉 도덕적 문제상황을 표상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시각적 심상으로 표상하는 경우 공리주의적 판단이 우세해지는 반면 언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의무론적인 판단이 강해진다(Amit & Greene, 2012). 또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빠르고 직관적으로 반응할 때는 참가자들이 주로 의무론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통제된 인지처리에 의해 판단이 느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인 결과론적 원칙에 의한 판단이 우세해진다는 결과도 존재한다(Suter & Hertwig, 2011). 이는 인

지심리학의 핵심이론인 이중처리모형(dual-process model)이 도덕적 판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loman, 1996). 즉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판단에서도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처리와 통제된 인지적인 처리의 영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영상들은 앞서 언급한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정보처리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예로 국제구호단체가 연민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직관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혹은 타인을 확대하거나 이용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은 부정적인 정서와 더불어 비관적인 프레임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악하게 바라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자극이 사람들의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경험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령 감사를 표현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을 경우 아기엄마들의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유발되었으며(Silvers & Haidt, 2008), 타인의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은 참가자들의 도움행동을 촉진하였다(Schnall, Roper, & Fessler, 2010). 또한 도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흑인단체들에 대한 백인들의 기부를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존재한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그런데 이 연구들은 모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은 보여준 반면 영상자극이 도덕적 행동이 아닌 도덕적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 판단과 행동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선분길이에 대한 동조실험(Asch, 1952)에서 내적인 판단(즉, 같은 길이의 선분에

대한 판단)과 외적인 행동(즉, 어떤 선택이 같은 길이 인지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선함이나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재미있는 영상이 도덕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던 것처럼 (Valdesolo & DeSteno, 2006), 긍정적인 영상은 도덕적 위반행위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긍정영상이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정영상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에서 실험자극으로 사용한 부정영상이 가혹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결한 영상이 유발한 생리학적인 혐오감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더러움이 아닌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다만 혐오감의 효과(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Wheatley & Haidt, 2005)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여주는 영상도 혐오감을 유발하여 엄격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은 도덕적 판단에 각각 관대함과 가혹함을 유도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예측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긍정적인 자극이라도 그 종류에 따라 도덕적 판단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trohinger, Lewis, & Meyer, 2011)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영상이 도덕적 관대함을 유발할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청결 욕구가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이 엄격해진다는 연구(정윤진, 이형철, 김신우, 2015)는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긍정영상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높여 오히려 도덕적 엄격함을 유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행위의 주체가 자신 혹은 타인일 때 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를 자기고양적 편향(self-serving bias)이라고 한다. 자기고양적 편향은 사람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andura, 1990; Mazar, Amir, & Ariely, 2008; Shalvi, Gino, Barkan, & Ayal, 2015). 자기고양적 편향을 보여준 연구들은 행위주체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보다는 자신의 도덕적 위반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Shalvi, Dana, Handgraaf, & De Dreu, 2011). 반면 본 연구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 혹은 타인인 경우를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할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해본다면 비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타인일 때보다 자신일 때 도덕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혹은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자신 또는 타인이 행위자로 제시된 다양한 도덕적 위반행동이 얼마나 옳은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 2. 실험

### 2.1. 방법

#### 2.1.1. 자극 및 실험설계

참가자들에게 제시할 영상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총 40개의 영상을 선별하였다. 이 영상들에 대해 7명에게 7점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여 선함 혹은 악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평정점수에 근거하여 각 4개씩 선정하였다 (Fig. 1). 선정한 영상들을 편집하여 약 15분의 긍정영상과 부정영상을 각각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두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였다. ‘긍정영상’은 인간의 박애정신,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인간의 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작하였으며, ‘부정영상’은 타인을 해치거나 억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인간의 악함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Fig. 1. Video screenshots: Positive video (left) and negative video (right).

참가자들이 평가한 시나리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반행위들을 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같은) 중간고사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를 발견했다. 그 친구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번 시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부정행위가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을 알지만, 나는 친구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다”, “(나는/같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3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같은) 그 지갑의 돈을 가져갔다”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총 16가지의 짧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시나리오가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에게 요청). 시나리오가 과도하게 악한 경우 바닥효과로 인해 처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나치게 악한 행위(살인, 납치 등)

는 시나리오로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 주체가 자신인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주어가 “나는”으로 시작하였으며, 행위 주체가 타인인 경우에는 행위자 성별과 시나리오 내용간 적합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름이 아닌 “같은”으로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설계는 참가자간 요인인 영상의 내용(긍정영상, 부정영상)과 참가자간 요인인 시나리오의 행위 주체(자신, 타인)를 교차하여 2 × 2 참가자간 요인설계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 2.1.2. 참가자

서울소재 대학교 학부생 39명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2 × 2 참가자간 요인설계에 따라 총 4가지 조건에 참가자들을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그 결과 부정영상/자신 조건에 9명이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세

조건에는 각 10명씩 참여하였다.

2.1.3. 실험절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건에 따라 할당된 영상을 시청한 후 설문지에 제시된 도덕적 시나리오에 나타난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평정하였다. 설문지에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아래에 해당 시나리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척도를 제시하였다.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에 따라 매우 옳지 않음(1점), 옳지 않음(2점), 보통(3점), 옳음(4점), 매우 옳음(5점)으로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총 16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하나씩 평정하였으며 모든 평정이 끝나면 실험을 종료하였다. 영상시청과 설문지 응답을 포함하여 실험은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2.2. 결과

Fig. 2는 조건에 따른 도덕성 평정결과를 보여준다. 제시한 시나리오가 모두 도덕적 위반행위였기 때문에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점 이하로 평균이 도출되었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참가자 간 요인인 영상의 내용(긍정영상, 부정영상)과 행위 주체(자신, 타인)에 대한 2 × 2 참가자간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내용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35) = 4.99, p = .03, \eta_p^2 = .13$ . 이는 긍정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 $M = 2.30, SD = 0.38$ )은 부정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 $M = 2.04, SD = 0.44$ )보다 시나리오의 위반행동들에 대해 더 관대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영상이 도덕적인 관대함을 이끌어 낸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시나리오의 행위 주체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35) = 7.20, p = .01, \eta_p^2 = .17$ . 이는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평가한 참가자들( $M = 2.31, SD = 0.42$ )은 타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평가한 참가자들( $M = 2.03, SD = 0.39$ )보다 더 관대하게 평가한 결과이며, 도덕적 판단에서 자기 편향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상 콘텐츠와 행위 주체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F(1, 35) = 13.96, p < .001, \eta_p^2 = .29$ , 두 요인의 주효과는 각 조건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영상-타인평가 조건에서 평정값이 매우 낮았다는 것은 앞서 보고한 두 가지 주효과가 모두 이 조건의 낮은 평균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영상의 주효과와 행위주체의 주효과 모두 부정영상-타인평가 조건에서의 낮은 평정값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한 사후 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결과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긍정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 $M = 2.21, SD = 0.49$ ) 혹은 타인( $M = 2.38, SD = 0.22$ )의 행동에 대한 평가 및 부정영상을 시청한 뒤 자신( $M = 2.41, SD = 0.33$ )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 > .05$ . 반면 부정영상을 시청한 후 타인( $M = 1.67, SD = 0.21$ )의 행동에 대한 판단할 때 참가자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 보다 더 엄격하게 평정하였다,  $ps < .05$ . 이는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영상은 행위주체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은 타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더욱 비도덕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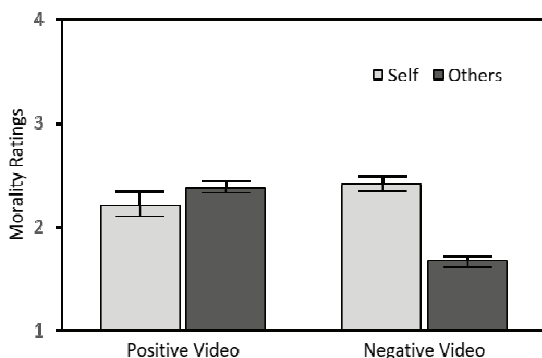


Fig. 2. Morality ratings as a function of video type and target of judgment.

3. 종합논의

과거 연구자들은 도덕성이 인지적 추론능력의 증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제안하였다(Kohlberg, 1971; Piaget, 1965). 그러나 도덕 심리학의 최근 연구들은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이 추론능력보다는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영상 자극들은 윤리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표상 및 정보처리 방식과 정서

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선함 혹은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자극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해본다면 긍정적인 영상은 도덕적 위반행위에 대해 관대한 판단을 하도록 만들 것이며, 부정적 영상은 엄격한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Valdesolo & DeSteno, 2006). 혹은 반대로 인간의 선함 혹은 악함을 강조하는 영상은 도덕적 기준을 높이거나 혹은 낮춰 결과적으로 엄격한 혹은 관대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Zhong, Strejcek, & Sivanathan, 2010).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도덕적 위반행위의 행위주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자기고양적 편향에 근거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를 관대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이라는 행위주체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동일한 상황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선함 혹은 악함을 보여주는 긍정 혹은 부정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 자신 혹은 타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도덕적 위반사례의 옳고 그름에 대해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종류와 행위주체 모두 주효과가 있었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주효과는 모두 인간의 악함을 강조하는 부정영상을 시청한 뒤 타인에 대해 엄격하게 평정한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부정영상의 내용이 도덕적 판단을 위해 제시한 사례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부정영상에 의해 발생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엄격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했을 수 있다. 실제로 혐오감, 더러움을 느끼는 경우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Wheatley & Haidt, 2005). 그러나 불쾌감이나 혐오에 의한 효과가 행위주체가 자신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타인인 경우에만 발생했다는 것은 혐오나 불

쾌감 등의 정서에만 근거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부정영상을 시청한 뒤 경험한 혐오감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위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혹은 혐오나 불쾌감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즉, 부정영상의 효과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대안적으로 부정적인 영상에서 행위주체에 따른 도덕성 평가의 차이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81). 즉, 인간의 악함을 강조한 영상을 본 후 참가자들은 인간의 잔인함, 부도덕함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 즉 프레임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 부정영상을 시청한 뒤 형성되는 이러한 부정편향은 타인의 도덕적 위반행위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로 가혹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자극에서 보여준 것은 참가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참가자 자신인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이 엄격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정적 영상을 본 경우에는 ‘타인’의 악함에 대한 프레임에서 제시된 사례를 평가했기 때문에 Fig. 2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긍정영상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제시한 사례들이 모두 명백하게 비도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긍정영상을 통해 인간의 선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평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점 척도에서 3점이 중앙값이었기 때문에 극단값인 1점을 제외하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평정은 대부분 2점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타인의 행동에 대해 긍정 프레임의 효과가 있더라도 참가자들이 그러한 차이를 척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점에 평정해야 하는데, 이는 도덕적 위반행위를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 프레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응척도의 제약으로 인해 프레임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

능성이 높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긍정영상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가 다소 관대해진 것은 약하게나마 프레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정영상에서 행위주체에 따른 도덕성 평정은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기본적 귀인오류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여기는 반면,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의미한다 (Ross, 1977). 이러한 내적 귀인에 따르면 인간의 선한 모습을 본 경우 인간의 본 모습을 선하게 해석하며 이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본 경우에는 내적귀인에 따라 인간의 본연적 특성을 악하게 해석하여 타인의 행동을 가혹하게 평가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부정영상을 시청한 뒤에 타인의 도덕적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하게 평가한 것은 시나리오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해석하여 비관적이고 엄세적인 관점에서 가혹하게 평정했을 수 있으며, 이는 내적귀인 편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긍정영상에서 귀인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 즉 자신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 관대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앞서 설명한 척도의 제한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방법론상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타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적귀인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효과가 타인의 악함을 관찰한 후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가혹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지할 점은 본 연구가 보여준 영상들과 참가자들이 평정한 시나리오들이 내용상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영상의 내용과 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은 사실상 부정영상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평정에 의해 발생했다. 하지만 5점 척도가 아닌 9점 척도 등을 사용했을 경우, 긍정영상 조건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 관대한 평가 경향성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차상호

작용(cross-over interaction)이 발생했을 수 있다. 실제로 긍정영상-타인 조건에서의 평균 평정값이 2.38이었다는 것은 도덕적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참가자들이 중앙값인 3점(보통)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내용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영상 종류에 따라 참가자들의 정서, 특히 혐오감 등의 변화가 다르게 발생했다면 매개분석 등을 통해 실험 결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타당한 해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논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mit, E., & Greene, J. D. (2012). You see, the ends don't justify the means: Visual imagery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23(8), 861-868. DOI: 10.1177/0956797611434965
- Asch, S. E. (1952). Group forces i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S. E. Asch, *Social psychology* (pp. 450-501).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Hall, Inc.
- Bandura, A. (1990). Selective activation and disengagement of moral control. *Journal of Social Issues*, 46(1), 27-46. DOI: 10.1111/j.1540-4560.1990.tb00270.x
- Freeman, D., Aquino, K., & McFerran, B. (2009). Overcoming beneficiary race as an impediment to charitable donation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and donatio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 72-84. DOI: 10.1177/0146167208325415
- Jung, Y., Li, H-C. O., & Kim,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desire and moral judgment.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8(4), 15-24.

- DOI: 10.14695/KJSOS.2015.18.4.15
- Kohlberg, L. (1971). Stages of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1*, 23-92.
- Lee, W. (2019). *Effects of facial expression of others on moral judgment* (Masters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Mazar, N., Amir, O., & Ariely, D. (2008). The dishonesty of honest people: A theory of self-concept mainten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6), 633-644. DOI: 10.1509/jmkr.45.6.633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NY, US: Free Press.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73-220.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8), 1096-1109. DOI: 10.1177/0146167208317771
- Schnall, S., Roper, J., & Fessler, D. M. (2010). Elevation leads to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3), 315-320. DOI: 10.1177/0956797609359882
- Shalvi, S., Dana, J., Handgraaf, M. J., & De Dreu, C. K. (2011). Justified ethicality: Observing desired counterfactuals modifies ethical perceptions an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5*(2), 181-190. DOI: 10.1016/j.obhdp.2011.02.001
- Shalvi, S., Gino, F., Barkan, R., & Ayal, S. (2015). Self-serving justifications: Doing wrong and feeling mora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4*(2), 125-130. DOI: 10.1177/0963721414553264
- Silvers, J. A., & Haidt, J. (2008). Moral elevation can induce nursing. *Emotion, 8*(2), 291-295. DOI: 10.1037/1528-3542.8.2.291
- Sloman, S. A. (1996). The empirical case for two systems of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19*(1), 3-22. DOI: 10.1037/0033-2909.119.1.3
- Strohinger, N., Lewis, R. L., & Meyer, D. E. (2011). Divergent effects of different positive emotions on moral judgment. *Cognition, 119*(2), 295-300. DOI: 10.1016/j.cognition.2010.12.012
- Suter, R. S., & Hertwig, R. (2011). Time and moral judgment. *Cognition, 119*(3), 454-458. DOI: 10.1016/j.cognition.2011.01.018
- Tracy, J. L., Steckler, C., & Heltzel, G. (2019). The physiological basis of psychological disgust and mora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1), 15-32. DOI: 10.1037/pspa0000141
-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453-458. DOI: 10.1126/science.7455683
- Valdesolo, P., & DeSteno, D. (2006). Manipulations of emotional context shape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7*(6), 476-477. DOI: 10.1111/j.1467-9280.2006.01731.x
- Wheatley, T., & Haidt, J. (2005). Hypnotic disgust makes moral judgments more severe. *Psychological Science, 16*(10), 780-784. DOI: 10.1111/j.1467-9280.2005.01614.x
- Zhong, C. B., Strejcek, B., & Sivanathan, N. (2010). A clean self can render harsh moral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5), 859-862. DOI: 10.1016/j.jesp.2010.04.003

원고접수: 2019.04.30

수정접수: 2019.06.08

게재확정: 2019.06.08